Bobcat



코리안 빅리거, 희망 쏘고 시즌 마무리

송고시간 | 2008-09-29 10:23

























장현구 기자

코리안 빅리거, 희망 쏘고 시즌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코리안 빅리거 3인방이 2009년을 향한 희망을 부풀리며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다.

베테랑 박찬호(35.LA 다저스)와 새로운 둥지에 안착한 백차승(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한국인 두 번째 빅리그 외야 수 추신수(26.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각각 소속팀에서 중간 계투, 5선발투수, 주전 외야수로 뛰고 그라운드를 활발하 게 누볐다.



백차승을 제외하고 전원 마이너리그로 강등돼 코리안 빅리거는 어느 해보다 우울하게 한 해를 시작했으나 박찬호가 시 즌 개막 나흘 만에 빅리그로 올라오고 지난해 팔꿈치 수술 후 재활에 성공한 추신수가 6월부터 정상 출전하면서 우려했 던 한국인 메이저리거 멸종 사태는 사라졌다.

그러나 '잠수함' 김병현(29)이 시범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4.40 의 난조로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쫓겨난 뒤 새 팀을 찾지 못해 1년을 푹 쉬었고 빅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간 우투수 류제국 (25.탬파베이)도 오른쪽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로 6월 시즌을 접고 내년을 기약했다.

◇박찬호 '가자 월드시리즈'

1996년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된 뒤 처음으로 불펜 투수로 한 시 즌을 보낸 박찬호는 4승4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3.40으로 시즌 을 마쳤다. 시즌 최종전이던 29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상이닝 동안 2실점하고 패전투수가 된 것은 옥에 티였다.

연봉 50만달러에 빅리그 보장이 없는 논 개런티 계약을 하고 친정 다저스에 6년 만에 복귀한 박찬호는 시범경기서 강 한 인상을 남겼으나 거액을 받은 선발투수 에스테반 로아이사에게 밀려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다저스가 4월3일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5시간 가까운 혈투를 치르면서 마운드가 고갈돼 트리플A에 있던 박 찬호에게 기회가 생겼고 그는 불펜투수로 빅리그에 재입성하고 나서 줄곧 다저스 불펜을 지키며 맹활약했다.

팀 사정에 따라 선발투수로도 나서는 등 '스윙맨'(선발과 중간 계투가 가능한 투수) 노릇을 톡톡히 했고 빅리그 데뷔 15 년 만에 처음으로 세이브를 올리기도 했다.

2년 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대표팀 마무리로 대성공하고서 빅리그 중간 계투에서도 안정된 내용을 보인 박찬호는 그러나 "내년 시즌에는 선발로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태.

일단 10월2일부터 시작되는 포스트시즌에서 주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박찬호는 다저스 소속이던 1996년, 샌디에이 고 유니폼을 입었던 2006년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로 가을 잔치에 초대됐다. 포스트시즌 에서는 2006년 세인트루 이스를 상대로 딱 한 번 등판했다.

포스트시즌에서도 중간 계투로 관록 있는 투구를 보여줘야 시즌 후 박찬호의 입지도 더욱 넓어질 전망.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추신수, 내년에도 붙박이 주전

지난해 팔꿈치 수술 탓에 아쉽게 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 합류가 좌절된 추신수는 소속팀에서 한을 제대로 풀었다.

재활을 마친 뒤 6월에서야 빅리그에 올라왔음에도 불구, 추신수는 94경기에서 타율 0.309(317타수98안타)를 때리고 홈런 14개, 66타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특히 후반기에만 타율 0.343, 홈런 11개 48타점을 올려 중심 타자로 완전히 자리를 굳혔다. 그는 6번 타자로 기용되다 5번으로 상승하더니 시즌 막판에는 3번 타자를 꿰차며 에릭 웨지 감독의 신임을 받았다.

좌투수를 상대로 타율 0.286을 때려 시즌 타율과 비슷한 성적을 올리면서 '플래툰시스템'에서도 벗어났다. 강한 어깨, 장타력, 정확한 타격, 주루 센스 등 공수주 3박자를 갖춘 그는 빅리그 데뷔 4년 만에 이름값을 해내면서 내년 주전 한 자리는 이미 확보했다.

그는 2004년 최희섭(KIA)이 플로리다와 LA 다저스에서 뛸 무렵 작성한 한국인 타자 시즌 최다 타점(46개)과 안타(86개)를 모두 새로 쓰고 한국인 간판타자로 자리매김했다.

◇백차승, 5선발을 향해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5월 방출대기조치를 당하고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이적한 백차승은 새 팀에서 꾸준히 선발로 뛰면서 2004년 빅리그 데뷔 후 최다승인 6승(10패) 평균자책점 4.79로 시즌을 끝냈다.

최고 시속 150km에 이르는 빠른 볼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백차승은 데뷔 후 가장 많은 141이닝을 던지며 비로소 빅리그 타자들과 승부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샌디에이고 이적 후 선발 투수로 올린 성적은 5승9패 평균자책점 4.47로 나쁘지 않다.

올스타전 이후에는 4승5패, 평균자책점 4.30으로 나이졌고 9월 이후에는 2승1패, 평균자책점 3.68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시즌 막판 오른쪽 팔 근육통, 왼쪽 종이리 근육통 등 잦은 부상으로 조기 강판한 점은 내년 붙박이 선발을 꿰차고 자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cany9900@yna.co.kr

● 관련기사

이치로, MLB 최다 타이 8년 연속 100득점

MLB 필라델피아, 2년 연속 PO 진출

MLB 셰이스타디움도 '굿바이 뉴욕'

박찬호 패전에 백차승 도중하차..추신수는 결장

미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내달 2일부터 시작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9/29 10:23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가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까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 매"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기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5 참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ഈ 66 안 맞아"(종합)

4 두문불출이재명,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활 № 56 동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압뉴스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뉴스+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흥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